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자는 자들에 관하여

[살전 4: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킨다.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한 것은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모습이 비슷하며 자는 자가 잠을 깨듯이 죽은 자도 주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은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다.

‘소망 없는 다른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슬퍼한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믿는 가족이나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이별이니까 슬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스런 천국에 들어가 부활 때까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쁘고 복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14절] [이러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실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믿음의 기본 내용이며 우리의 부활 소망의 근거임을 보인다. ‘예수 안에서’라는 원문은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자는 자들’에 걸리기보다 ‘데리고 오시리라’에 걸린다고 본다. 이 표현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대속 사역,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영혼들을 그의 재림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함께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15절] [이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우러니)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못할 것임이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려오신다고 말한 이유는 그의 재림 때에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예수님을 26회 ‘주’라고 불렀다.

[16절] [이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니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라는 원어는 이 세상에 오셨던 주, 곧 사람으로 태어나 약 33년 사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한다.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은 주의 재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 곧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 것을 증거한다. 이것은 사도행전 1:11의 증거와 같다. 거기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엄위하게 드러난 사건일 것을 나타낸다.

[17-18절]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두 번째 일은 살아 있는 성도들의 변화이다. 고린도전서 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흔히 ‘휴거’(rapture)라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4:31).

‘영접하게’라는 원어는 ‘만나게, 맞이하게’라는 뜻이다. 주께서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2-3,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은 아무 부족이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 이 될 것이다. 주의 재림과 영광스런 부활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이다. 성도들은 이 진리와 소망으로 다른 성도의 죽음 앞에서 위로를 받는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에게에는 몸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사실이다. 주께서는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28-29,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기를 원하신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은 무서운 사실이지만, 성도에 대한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참으로 복된 소망이다. 죽은 성도의 부활은 복되다.

둘째로, 성도의 부활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많은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었고 네 권의 복음서와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증거되어 있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근거일 뿐 아니라, 성도의 복된 부활의 첫열매이며 증거이다. 고린도전서 15:13-15,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셋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

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진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강조된 진리이다. 매 장에 재림의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 1:10,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2:19,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3:13,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5:23,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살아 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그들은 다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 그들은 영광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성도의 소망과 위로가 여기에 있다.

주일오후설교 주께서 백마 타고 오심

[계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충성됨과 진실)진실함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와 탄 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본다. 흰색은 성결함을 나타내고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기동력과 힘을 나타낸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는 성결하신 분이시며 그의 심판은 신속하고 힘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충성됨과 진실함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20:28). 그는 그 일을 충성되어 완수하셨다. 또 그는 진실하신 자이다.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허풍이 없으시고 사람을 속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말쟁이들이며 허풍쟁이들이다.

또 주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이다. 그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다. 그는 법과 원칙대로, 네 편 내 편이 없이, 편벽됨 없이, 치우침 없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자이다. 그가 싸울 대상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모든 악인들이다. 그는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12-14절]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여러 이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

르더라.

불꽃같은 눈은 그의 신적 지식과 통찰력을 가리킨다. 또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은 그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 그에게는 여러 이름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충성됨, 진실함,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등의 이름들이 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한 이름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그의 신성(神性)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요일 5:20) 크신 하나님이지다(딤후 2:1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신비에 감춰져 있다.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사역을 가리키거나 혹은 원수들을 심판할 때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묻을 것을 상징할 것이다(사 63:1-3). 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원문) 말씀”이라고 증거하였다(요 1:1).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주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마 25:31). 천사들이 회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것은 성결함과 기동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울 모든 천사들은 다 성결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15-16] 그의 입에서 이(利)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鐵杖)[쇠지팡이]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채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은 그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의 말씀은 심판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그는 두려운 말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다. 또 그는 친히 쇠지팡이로 저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를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는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그는 분명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17:14). 그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시요 모든 주인들의 참 주인이시다.

[17-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천사가 해에 선 것은 온 세계의 새들이 볼 수 있도록 외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대조된다. 본문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이다. 그것은 새들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예언된 큰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을 의미한다.

[19-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위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블 리우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연합군이 재림의 주님과 더불어 싸우려 하다가 패하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울 것이다. 적그리스도적 국가의 지도자들과 배교적 교회의 지도자들은 맨 먼저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산 채로 던지운다는 말은 그들이 악인의 부활체를 입은 후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을 가리킬 것이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8에서,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예언하였다. 또 그 전쟁에 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어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결하고 위엄 있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한다. 그는 충성되고 진실하신 주님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는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의 눈은 불꽃같은 깊고 예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셨다. 그의 심판은 참으로 두려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그는 능력의 손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실 것이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따라 내려와 그의 심판을 도울 것이다.

둘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결국 잡혀 산 채로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켰다. 특히 둘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성경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하였다. 16:13,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9:20, “짐승

이 잡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20:10,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배교한 교회는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사치할 것이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유황 불 붙는 못, 즉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요한복음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며 지옥 불못을 피하는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교훈대로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가는 것이다.

수요일 설교 여호와의 전의 산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미가 4:1-3에도 본문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 있다. 신약시대는 말세의 시작이다(벰전 4:7; 요일 2:18).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주전 4천년 전부터 시작된다. 구약시대가 약 4천년이며 신약시대가 지금부터 약 2천년 전부터이다. 20세기에 들어와 교회들은 다시 불신앙과 배교에 떨어지고 있고, 이단적인 자유주의 신학과 잘못된 연합운동과 은사운동의 확산, 또한 교회음악과 예배 형식에 있어서의 세속화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주의 재림과 역사의 대종말이 가깝다고 느껴진다.

[2절] 말일(末日)에 여호와의 전(殿)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으로서 신약교회를 가리키고, 또 ‘모든 산꼭대기’와 ‘모든 작은 산은 이방 나라들과 이방 종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말한다. 세계복음화는 구약성경에도 밝히 계시된 바이다(창 22:18; 시 22:18; 67:3; 113:3; 117:1).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엄숙히 명하셨다(마 28:19-20; 막 16:15; 행 1:8).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최대의 임무와 사명이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의 산(山)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殿)에 이르자. 그가 그 도(道)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민족과 백성이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족속이 신약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을 보인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될 것이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쟁기날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후에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다. 천국은 의와 평안이 충만한 복된 세계일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신약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한다. 이사야가 예언한 마지막 날들의 일들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신약시대는 종말의 시작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이시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구주는 없으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주 예수께 붙어 있고(행 11:23),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행 13:43), 주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행 14:22).

둘째로,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며 큰 명령인 것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일에 동참해야 한다. 사도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롬 15:19).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증거하였다(골 1:23). 오늘날 이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으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야 하며 전도자들을 그곳에 배포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에 직접 몸으로,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동참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평안의 날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후 복된 평안의 세계가 올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왕으로 오셨다(사 9:6-7). 천국은 의와 평안의 나라다(롬 14:17).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인들이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벰후 3:13). 거기에는 모든 죄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을 것이다(계 21:4). 우리는 이 의와 평안과 기쁨의 천국이 올 것을 확신하고 소망해야 한다.